

Shakespeare의 'Race-Prejudice'

—Othello와 The Merchant of Venice를 중심으로—

尹 三 夏*

I

Shakespeare 비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詩人(劇作家) Shakespeare와 讀者(觀客)사이의 관계는 비평가의 머리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작품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비평가의 해석이나 의견을 작가에게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작가 자신의 意圖가 무엇인가 하는데 接近해 가야 할 것이다. Shakespeare 비평의 複雜性과 難解性을 지적하기 전에 Shakespeare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 풍부함, 다양함, 그리고 深奧함(profundity)을 지닌 작가라는데 異議가 있을 수 없다. Shakespeare극은 단조로움에서 변화있는 것과 精巧한 것(refinement)으로, 또한 과장된 修辭的表現에서 미묘한 語調로 발전된 劇藝術의 發達을 가져왔다." 이러한 그의 교묘한 表現은 多義性(equivocal tone)을 內包하고 있어서 그만큼 해석의 어려움을 隨伴한다. W.H. Clemen은 Shakespeare극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But what Shakespeare himself really believed we do not know. And the fact that we do not know is part of the unique quality of his work, and this brings us to touch upon the personality of its creator. For the exceptional objectivity of the dramatic writing, which has always roused admiration of critics and readers, has its roots in the fact that Shakespeare himself always remains in the background.

그렇기때문에 Shakespeare自身을 찾아내려고 그에 대한 接近法도 多樣해 지는 것이다.

本試論에서 追求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이러한 多義性 속에 深化된 아이러니를 통해서 다 소나마 그가 다루고 있는 人間의 本質, 人間의 限界에 대한 暗示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筆者

*文理科大學(大田) 外國語 教育科 專任講師

- 1) T.S. Eliot, 'Rhetoric' and Poetic Drama', *The Sacred Wood: Essays on Poetry and Criticism* (London: Methuen, 1964), p. 80.
- 2) Wolfgang H. Clemen, 'Characteristic Features of Shakespearian Drama', *Shakespeare's Dramatic Art* (London: Methuen, 1972), p. 213.

는 近來 *Othello* 와 *The Merchant of Venice* 를 읽고 Shakespeare 의 民族의 혹은 人種的 偏見에 대해서 一種의 疑惑을 품고 있었으며 더구나 *Henry VI, Part I*에서 Joan La Pucelle (Joan of Arc)을 'a lusty adventurous wench', 'foul accursed minister of Hell' 등 魔女나 매춘부로 卑下시킨 소위 그의 'chauvinism' 또는 'jingoistic view'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연히도 Leslie Fiedler 의 著書 *The Stranger in Shakespeare* 를 통해서 많은 示唆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금까지 傳統的인 批評이 탐색해온 人間의 한 理想을 具體化한 "hero"와 'villain'이라는 古典的인 定義에서 벗어난 어떤 境界線上의 人物(borderline figure), 즉 'shadow', 'other', 'alien', 'outsider', 'stranger'라는 여러가지 名稱으로 불리우는 말하자면 人間社會에서 疎外된 人物의 탐색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Henry VI, Part I*에서의 女性들, *The Merchant of Venice*에서의 유대인, *Othello*에서의 Moor, *The Tempest*에서의 "New World savage"를 다루고 있는데 그가 Shakespeare 의 최초의 史劇으로부터 喜劇, 悲劇, 그리고 최후의 浪漫劇에 이르기까지의 네 작품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매우 妥當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의 甚大한 연구에 아직 충분히 접근하지는 못하였으나 本試論에서는 Shakespeare 의 代表的인 悲劇과 喜劇 속에 다루어져 있는 人種問題 즉 民族의 偏見(Race-prejudice)에 대한 그의 藝術的 態度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Shakespeare 가 *Othello* 의 Moor 와 *The Merchant of Venice* 의 Jew 를 각각 主人公으로 다룸으로써 當時의 社會的 偏見에 대하여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연히도 오늘날 우리의 關心이 되고 있는 人種問題와도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여지는 것이다.

II

Othello 는 앞서 지적한 Shakespeare 의 多樣性이 특히 두드러진 작품으로서 비평가에 따라서 여러가지 해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Othello* 의 性格에 대하여 'noble Moor' 나 'demi-devil' 이니 해서 相反된 見解가 오고 가고³⁾ 특히 *Othello* 가 黑人이나 아니냐에 관한 여러 學者의 議論만 하더라도 참으로 구구하다.⁴⁾ 그중에서도 Coleridge 는

No doubt Desdemona saw Othello's visage in his mind; yet, as we are constituted, and most surely as an English audience was disposed in the beginning of the seventeenth century, it would be something monstrous to conceive this beautiful Venetian girl falling in love with a veritable negro. It would argue a disproportionateness, a want of balance, in Desdemona, which Shakespeare does not appear to have in the least contemplated.⁵⁾

3) 拙稿 「*Othello*의 悲劇的 아이러니」, 영어영문학연구, No. 11, 한국영어영문학회 충청강원지부, 1976, 참조.

4) 'Othello's Colour', Appendix to *Othello*, A New Variorum Edition of Shakespeare, ed. Horace Howard Furness, (New York: Dover, 1963), pp. 389-396.

5) *Ibid.*, p. 390.

라고 말하면서 黑人和 白人の 結合이 「不均衡」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Knight는 Shakespeare 시대에 Moor와 Negro가 혼동되어 사용되었으며 文化民族인 Arab인들의 후에 ('men of royal siege')와 Africa의 未開人들과 혼동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⁶⁾

Bradley는 Othello가 黑人이든 갈색인종이든 이 문제는 Desdemona의 성격과 관련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Desdemona의 高貴함('eternal womanly')은 곧 Othello의 외모보다 그의勇氣와 理想을 熱望한데 있다고 말하면서 이 극이 Desdemona의 경솔한 판단과 외교집에 의한 悲劇으로 보는 見解를 攻駁하고 있다.⁷⁾

어쨌든 이 극이 지닌 미묘한 感動은 一見 黑人 Othello와 白人 Desdemona의 사랑이 처음부터 벽에 부딪쳐 야단스러운 소동을 벌이다가 끝내 조용히 끝나지 못한 矛盾으로서 全篇에 흐르고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수 없는 ('that kills for loving') paradox는 이들 두 사람의 結合이 처음부터 不當했기 때문인가? 물론 이 극에서 Iago의 役割이라는 것이 끼어 있기는 하지만 一見 Moor 장군 Othello와 Venice의 귀족딸인 Desdemona와의 관계에서 이 극을 살펴 보기로 하자.

Act I에서 Iago의 계획대로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Brabantio의 雜婚(miscegenation)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Venice의 공작과 Senators 앞에 공개된 Moor와 Desdemona의 結合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Iago는 이들 두사람의 結合의 脆弱性(frailty)에 대해서 "It cannot be that Desdemona should long continue her love to the Moor." (I, iii, 346-348)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Roderigo에게 진술하고 있다.

These Moors are changeable in their wills.—Fill thy purse with money. The food that to him now is as luscious as locusts shall be to him shortly as bitter as coloquintida. She must change for youth. When she is sated with his body, she will find the error of her choice. She must have change, she must— . . . If sanctimony and a frail vow betwixt an erring barbarian and a supersubtle Venetian be not too hard for my wits and all the tribe of Hell, thou shalt enjoy her—

(I,iii,352-365)

즉 Moor인의 變節에 대한 一般的인 慣習과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여자와의 結合이 不自然스러움을 말하고 있는데 'erring barbarian'인 Moor와 'supersubtle Venetian'인 Desdemona와의 사랑이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그의 確信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Iago의 말에는 矛盾이 있다. 그는 異民族混合의 非現實性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이 많은 남편을 가진 젊은 아내의 變節을 들고 있다. Iago의 Othello 묘사를 좀더 들어 보면,

Even now, now, very now, an old black ram

6) *Ibid.*

7) A.C. Bradley,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acmillan, 1960), p. 165.

Is tuppung your white ewe.

(I,i, 88-89)

Because we come to do you service and you think we are ruffians you'll have your daughter covered with a Barbary horse, you'll have your nephews neigh to you, you'll have coursers for cousins, and jennets for germans.

(I,i, 109-114)

. . . your

daughter and the Moor are now making the beast with two backs.

(I,i, 116-117)

Iago에게 있어서 Othello는 'old black ram', 'Barbary horse', 'beast' 등 짐승의 비유로서 표현되고 있지만 여기서 Iago가 말하고 있는 것은 Moor인으로서의 野蠻性이라기 보다 Othello라는 人間 自體의 氣質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Leslie Fiedler는 Shakespeare의 語彙使用을 분석하면서 Venice의 공작이 Brabantio에게

If virtue no delighted beauty lack,
Your son-in-law is far more fair than black.

(I,iii, 290-291)

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black"이나 "fair"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다만 피부색이나 머리칼의 색깔 즉 人種的인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미로 쓰여졌다고 말한다.⁸⁾ Shakespeare 시대에는 아름다운 것은 곧 옳과 같은 미덕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들 어휘의 언어학상 의미보다 철학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Fiedler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본다면

But this means that for Shakespeare "black" does not primarily describe an ethnic distinction (though, of course, Othello is meant to be perceived as an African, thick-lipped as well as dusky-hued), but a difference in hue—and temperament—distinguishing from one another even what we would identify as members of the same white race.⁹⁾

다시 말해서 Shakespeare의 "black"이라는 말의 第一次의 뜻은 人種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색깔 곧 기질의 차이라는 것이다. 가령 Caucasians와 Africans의 차이가 아니라 blondes와 brunettes의 차이처럼 白人社會내에서도 볼 수 있는 個人的인 차이라는 것이다.

사실 Shakespeare의 어휘가운데 "black"의 반대말로써 "white" 대신에 "fair"가 자주 쓰이고 있다. *Macbeth*에 나오는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에서도 "fair"라는 말이 "foul"과

8) Leslie A. Fiedler, *The Stranger in Shakespeare* (London: Croom Helm, 1973), p. 171.

9) *Ibid.*

對照되어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Brabantio가 Othello에게 'foul charms' (I,ii, 73), Othello가 Desdemona에게 'Oh, she was foul' (V,ii,200)이라고 말하고 있고 Iago와 Desdemona의 말재롱(bantering exchange)을 부리는 장면에서

If she be fair and wise, fairness and wit,
The one's for use, the other useth it.

(II,i, 130-131)

If she be black, and thereto have a wit,
She'll find a white that shall her blackness fit.

(II,i, 133-134)

There's none so foul, and foolish thereunto,
But does foul pranks which fair and wise ones do.

(II,i, 142-143)

“black”와 “foul”이 같은 뜻으로, 한편 “fair”가 “white”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Act VI에서 憎惡에 휩싸인 Othello가

Or keep it as a cistern for foul toads
To knot and gender in!

(IV,ii, 61-62)

Was this fair paper, this most goodly book,
Made to write “whore” upon? . . .

(IV,ii, 71-72)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fair”는 결백 “foul”은 더러움 또는 惡으로서 표현되어 있다. 다음에 Act V에서 Desdemona의 억울한 죽음을 본 Emilia가 Othello에게

Oh, the more angel she,
And you the blacker devil!

(V,ii, 130-131)

라고 말했을 때에도 “black”는 惡魔를 修飾하는 말로서 여기서 Shakespeare는 단순히 Moor인이라는 人種的인 偏見만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oderigo의 입을 통해서 표현된 ‘thick-lips’ (I,i, 66)는 다만 어리석은 Venice의 건달이 劇中에 내뱉는 말로서 흑인 Othello에 대한 심각한 경멸의 뜻이 숨어있다고는 할 수 없다. 當時의 Venice는 外國인들이 수없이 드나들었고 Othello가 Brabantio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듯이 有色인들이 高官의 집에 혹은 公式的인 모임에도 초청되어 사실 人種的인 偏見이나 피부색갈에 대한 혐오감이 있을

수 없었을지 모른다.¹⁰⁾

Othello의 적들이 화가 나서 빈번히 내뱉고 있는 이 “black”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피부색(‘dark-complexioned’)이 아니라 결국 상징적인 것이다. Shakespeare가 意圖하는 것은 Othello가 人種上 “black”이나 “brown”이라는 것보다도 人間の 내면의 道德的인 表現에 더 置重하고 있는것 같다. 이에 대한 Fiedler의 말을 다시 引用해본다면,

Othello is, in fact, the sole one of Shakespeare’s strangers to be labeled by that name: “an extravagant and wheeling stranger.” And as the epithet makes clear, he is portrayed as forever homeless, uprooted, and on the move, incapable—or at least so his enemies contend—of ever being naturalized.

Moreover, Desdemona dreams, or rather Shakespeare dreams through her, a symbolic marriage of all that Europe and Africa mythically mean: civilization and barbarism, courtesy and strength, belonging and freedom, Beauty and the Beast;¹¹⁾

여기서 우리는 *Othello*극이 단순히 民族的 偏見에 사로잡히지 않은 Shakespeare의 寓意性(allegory)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물론 黑人에 대한 당시의 常識的인 偏見을 갖고 있었을 것이지만 이 극이 白人の 珠玉이라고 할 Desdemona를 사랑한 黑人장군 Othello의 刑罰로서 단순한 民族的 悲劇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Fiedler는 *Othello*의 Paradox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한다.

. . . the fable of *Othello* is incredible and yet we believe it; the events of *Othello* constitute a “bloody farce,” and yet we respond to them with the tragic shudder.¹²⁾

그는 이 극이 희극성과 비극성을 교묘하게 결합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 인간의 어리석은 질투가 희극적인 상황과 비극적인 상황을 창조해 낸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극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한 인간의 잘못된 판단이 오히려 잘못이 없는 美德을 죽이는 驚異(miracle)를 Shakespeare는 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Othello 역할을 실제 흑인배우가 아닌, 흑인으로 분장한 배우(blackface)만이 희극적인 요소를 제대로 그려낼 수 있다고 Fiedler는 흥미있는 말을 하고 있다. 얼굴을 까맣게 칠한 배우가 하얀 눈알을 굴리며 어리석은 연출을 하는 光景을 우리는 聯想할 수 있다,

Best of all, however, might be for them to exchange masks at this juncture, showing the audience, in the brief interval when both faces are bare, that they are the same man—black or white, as contemporary fashion demands, it scarcely matters.¹³⁾

10) ‘Othello’s Colour’, *op. cit.*, p. 390.

11) Leslie A. Fiedler, *op. cit.*, p. 174.

12) *Ibid.*, p. 150.

13) *Ibid.*, p. 193.

이와같이 검은 mask를 쓴 白人 Othello와 흰 mask를 쓴 黑人 Iago가 주는 驚異와 感動은 그야말로 신비스럽고 또한 人間的인 것이 되지 않을까. Shakespeare는 그의 觀象들에게 人間 Othello의 外面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이다.

III

Shakespeare극은 한마디로 말해서 *Hamlet*의 Polonius의 입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tragical-comical-historical-pastoral, scene individable or poem unlimited” (*Hamlet*, II, ii, 417-419)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의 극이 단순해지거나 어떤 틀에 박히지 않도록 여러가지 要素를 二重三重으로 複合하여 表現해내는 그의 多樣性일 것이다. *The Merchant of Venice*도 觀點에 따라서는 희극도 될 수 있고 비극도 될 수 있다. 그의 四大悲劇에서 볼 수 있는 것은 主人公들이 그들의 어쩔 수 없는 矛盾에 휩싸여 최후에 죽음을 당함으로써 自己否定의 行爲를 完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The Merchant of Venice*에서는 主人公들이 아무도 죽지 않음으로 悲劇이 아니라는 말로서는 說明될 수 없다. 이 극의 主人公이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그 구별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극은 유대인에 관한 극이지만 Venice의 상인 Antonio와 유대인 Shylock이 主人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극에는 또한 두 개의 對立된 概念——법과 신의 은총, 正義와 慈悲, 복수와 용서등——이 서로 끊임없이 和 答하고 있는데 유대인과 기독교도라는 보다 복잡한 문제가 다루어져 있기도 하다.

이 극의 主人公으로서 Antonio는 우선 ‘perfect Christian gentleman’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는 또한 친구들의 존경을 받는 충실한 상인이다. (‘royal merchant’ (III, ii, 242; IV, i, 29.)) Bassanio는 Antonio를

. . . the kindest man,
The best-conditioned and unwearied spirit.
In doing courtesies, and one in whom
The ancient Roman honor more appears
Than any that draws breath in Italy.

(III, ii, 295-299)

이라고 말하고 Salario는 그를 ‘a Kinder gentleman treads not the earth’ (II, viii, 35)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착하고 고결한 人品을 立證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남의 일을 돕는데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느냐고 할 정도의 美德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극은 Antonio의 우울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In sooth, I know not why I am so sad.
 It wearies me, you say it wearies you;

 And such a want-wit sadness makes of me
 That I have much ado to know myself.

(I,i, 1-7)

더구나 Antonio 는 자기의 役割을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I hold the world but as the world, . . .
 A stage where every man must play a part,
 And mine a sad one.

(I,i, 77-79)

이러한 무거운 표정들은 이 극의 비극적 요소를 암시해주고 있으며 Antonio 는 결코 희극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지 않다. 그는 유태인 Shylock 에 대하여 극적으로 對照된 人物로서 그의 이러한 비극적인 요소는 Shylock 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준다. Shylock 의 Antonio 에 대한 反感은 대단하다. ('This is the fool that lent out money gratis.' (III, iii, 2), 'How like a fawning publican looks!' (I, iii, 42).) 그가 利子없이 돈을 마구 빌려줌으로서 Antonio 는 그의 사업을 방해하는 원수이며 마치 바보처럼 굶신거리는 稅吏에 비유하고 있다. Shakespeare 시대의 London 은 高利貸金業('usance')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法定利子인 10분의 1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Antonio 는 Shylock 의 눈에 바보로 보였을 것이다.¹⁴⁾

한편 Antonio 와 對照的으로 Shylock 는 'villain Jew' (II, viii, 4), 'dog Jew' (II, viii, 14), 'impenetrable cur' (III, iii, 18), 'damned inexecrable dog' 등 惡黨이나 짐승으로 불리우고 있다. Gratiano 가 法廷에서 Shylock 를 욕하는 장면에서

Oh, be thou damned inexecrable dog!
 And for thy life let justice be accused.
 They currish spirit
 Governed a wolf who, hanged for human slaughter,
 Even from the gallows did his fell soul fleet,
 And whilst thou lay'st in thy unhallowed dam
 Infused itself in thee, for thy desires
 Are wolfish, bloody, starved, and ravenous.

(IV,i, 128-138)

'dog' 나 'currish spirit' 나 'wolf' 나 하여 갖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를 저주한다. Shylock 자

14) Marchette Chute, *Shakespeare of London*(New York: Dutton, 1949), p. 176.

신도 'since I am a dog, beware my fangs' (III, iii, 7)라고 말하면서 Antonio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습勢하여 Shylock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욕설이 수없이 반복됨으로서 오히려 단조롭게 들리거나 그 의미가 덜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만약 Shylock이 'villain'이라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던가! 그것은 다름아닌 Antonio와 같은 기독교도들이었다. 유태인 Shylock이 받아들인 不當한 대우에 대한 그의 분개와 人間으로서의 自覺이 바로 그것을 立證하고 있다.

Signior Antonio, many a time and oft
In the Rialto you have rated me
About my moneys and my usances.
still have I brone it with a patient shrug,
For sufferance is the badge of all our tribe.
You call me misbeliever, cutthroat dog,
And spit upon my Jewish gaberdine,
(I,iii, 107-113)

I hate him for he is a Christian,
But more for that in low simplicity
He lends out money gratis and brings down
That rate of usance here with us in Venice.
If I can catch him once upon the hip,
I will feed fat the ancient grudge I bear him.
He hates our sacred nation, and he rails,
Even there where merchants most do congregate,
On me, my bargains, and my well-won thrift
Which he calls interest. Cursed be my tribe
If I forgive him!

(I,iii, 43-53)

. . . . He hath disgraced me, and hindered me half a million, laughed at my losses, mocked at my gains, scorned my nation, thwarted my bargains, cooled my friends, heated mine enemies. And what's his reason? I am a Jew. Hath not a Jew eyes? Hath not a Jew hands, organs, dimensions, senses, affections, passions? Fed with the same food, hurt with the same weapons, subject to the same diseases, healed by the same means, warmed and cooled by the same winter and summer as a Christian is?

(III,i, 56-66)

Shylock는 이렇게 Antonio를 위시한 기독교도들의 학대에 대한 복수심을 吐露하고 있지만

이것은 異民族, 異教徒의 壯烈한 「人權宣言」으로서 매우 시원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Shakespeare는 당시의 유대인과 기독교간의 철저한 偏見의 벽을 깨뜨리고 人間的인 共感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에 대한 偏見은 Shylock이 아무리 동정적인 호소를 한다 할지라도 觀客의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짐작된다. Ludowyk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Christian Europe reviled the Jew, and portrayed him as a hateful monster. If we are inclined to flatter ourselves that we are better in this respect, we need only pause for a moment to consider our own record in this century, when racial hatreds have involved not only Jews but countless others of all races in shameful treatment from people like our own enlightened selves. Shakespeare's reaction to Shylock as a Jew is likely to have been that of his time.¹⁵⁾

즉 유대인 Shylock에 대한 Shakespeare의 반응은 다분히 그의 時代의 慣習의 所産이라는 것인데, 그는 이어서 Shakespeare가 우리에게 유대인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Ludowyk는 이 문제에 대한 Shakespeare의 超然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 극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Shylock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복수심(vengefulness)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Shakespeare가 그의 시대의 偏見에 共感하고 있던지 反對하고 있던지간에 Shakespeare가 이 극의 主人公으로서 Shylock에 더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¹⁶⁾ J. Dover Wilson은 Shylock을 희극적인 인물로서보다 비극적인 인물로 보는 이유로 다음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그가 단순히 희극적인 인물이라면 이 drama의 매력이 크게 상실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Shakespeare 이전에 Marlowe가 쓴 *Jew of Malta*의 주인공이 무서운 인물로 그려져 있어서 자연히 그와 비슷하게 묘사하긴 했으나 Shakespeare의 Shylock은 보다 인간적이며 보다 설득력있게 그렸으며 셋째로는 Shakespeare극에 나오는 惡漢(villain)은(가령 Iago나 Macbeth, Richard III 처럼) 희극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¹⁷⁾ 비록 Shylock이 죽지는 안했다 할지라도 그가 꼬리대금으로 번 돈을 모두 빼앗기고 억지로 기독교도가 된 Shylock은 상징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Wilson은 다음과 같이 Shakespeare의 태도에 대한 그의 見解를 밝히고 있다.

Shylock is a terrible old man. But he is the inevitable product of centuries of racial persecution. Shakespeare does not draw this moral. He merely exposes the situation. He is neither for nor against Shylock. Shakespeare never takes sides.¹⁸⁾

15) E.F.C. Ludowyk, *Understanding Shakespeare* (Cambridge Univ. Press, 1964), p. 124.

16) A.C. Bradley, *op. cit.*, p. 14.

17) J. Dover Wilson, *Shakespeare's Happy Comedies* (Northwestern Univ. Press, 1963), pp. 107-108.

18) *Ibid.*, p. 114.

Shakespeare가 만일 그의 시대의 일반관습에만 따랐다면 그는 Anotonio와 Bassanio 그밖의 여러 친구들을 완전히 정당한 것으로 그렸을 것이며 Shylock는 다만 惡魔로서 人間的인 동정조차 받을 수 없는 人物로 묘사했을지 모른다. 반대로 그가 그의 시대의 관습에 타협하지 않았다면 그는 Shylock를 전적으로 동정하고 Bassanio와 Gratiano 그밖에 다른 人物들은 오히려 무도한 도둑으로 몰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Shakespeare의 아이러니와 통찰력은 결코 主人公들이 돈을 탐내는 건달이나 외로운 노인을 속여 재산과 딸을 뺏어간 험잡꾼으로 그리지도 않았다. H.J Bridges는 이에 대하여 매우 적절한 말을 하고 있다.

By a marvellous transcending of the prejudices of his time, he sympathizes profoundly with Shylock, and turns what another playwright would have represented as mere vicious perversity into an intelligible and dignified assertion of racial patriotism and natural, though not laudable, revenge.¹⁹⁾

즉 Shakespeare는 그의 時代의 偏見을 초월하여 Shylock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을 표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유대인의 民族愛를 당면한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見解이다. 다음과 같은 Wilson의 말도 매우 뜻있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Certainly, Shakespeare knew that the audience for which he wrote would have no sympathy with Shylock; and it is just because he knew that, that he could afford to exhibit his humanity.²⁰⁾

Shakespeare는 당시의 社會의 偏見에도 不拘하고 極惡無道한 Shylock 안에 있는 人間的인 憐憫을 그려내려 했음이 분명하다.

이 극이 현대의 유대인 관중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끼게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유대인이 받아들인 그 쓰라린 偏見과 不義의 역사를 實感있게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Shakespeare의 Shylock 묘사는 다소 非現實的(unrealistic)인 면이 없지않다. 당시 London의 유대인들은 기독교도화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를 대상으로했다기 보다는 中世기독교의 전통을 모델로 했을지 모른다.²¹⁾ 그 재료가 어쨌든 Shakespeare의 主題는 따로 숨어 있는것이 아닐까.

IV

*The Merchant of Venice*는 처음의 무거운 표정들이 희극적인 인물들(Portia와 Nerissa,

19) H.J. Bridges, *Our Fellow Shakespeare* (Chicago: Pascal Covici, 1925), p. 80.

20) J. Dover Willson, *op. cit.*, p. 115.

21) Machette Chute, *op. cit.*, p. 177.

Gobbo父子등)의 등장으로 밝은 빛을 띄게 된다. Portia는 상자고르기(casket scene)와 재판 장면에서 'fairy-princess'로 혹은 'moral-breathing saint' (II, vii, 40), 'angel' (II, vii, 58)로서 묘사되어 있다. 말하자면 낭만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극의 전체구성으로 보아서 Portia는 一面 Shylock과 對照的으로 보이기도 한다. Portia가 天使라면 Shylock은 惡魔에 해당된 셈이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Henry VI, Part 1*의 Talbot와 Joan의 관계처럼 보이는데 물론 史劇에서의 그들의 役割은 國家의 질서와 歷史的인 因果關係속에서 神이 내리는 惡에 대한 膺懲이라는 뚜렷한 倫理觀이 서 있다.

그러나 Shakespeare는 이 喜劇에서 Shylock이 이야기한대로 Antonio에 대한 복수가 實現되게 하지 않았으며 Antonio 또한 그에게 마지막 관대한 慈悲를 베푼다(IV, i, 379-390). Portia도 Shylock을 비방하거나 또한 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一連의 浪漫的인 面은 이 극이 悲劇性(the grave)과 喜劇性(the gay)으로 혼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 극에서 받는 感動은 *Othello*에 못지 않게 미묘한 것이다. Shakespeare는 결코 그의 意圖를 처음부터 이야기 하지 않는다. 유대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애정(humanity)은 마치 작가가 무의식적으로 얻어낸 부산물처럼 보이는 것이다. Wilson은 Shakespeare의 藝術態度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Nothing is more difficult than pin a dramatist (and Shakespeare above all dramatists) down to definite opinions and a definite point of view.²²⁾

*The Merchant of Venice*에는 우리의 注目を 끌게하는 또하나의 場面이 있다. 그것은 Portia의 求婚者인 The Prince of Moroco의 묘사이다. Moroco는 *Othello*(Moor)의 외모와 같이 위엄있고 또한 인간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Misliked me not for my complexion,
The shadowed livery of the burnished sun,
To whom I am a neighbor and near bred.
Bring me the fairest creature northward born,
Where Phoebus' fire scarce thaws the icicles,
And let us make incision for your love,
To prove whose blood is reddest, his or mine.
. I would not change this hue,
Except to steal your thoughts, my gentle Queen.

(II,i, 1-12)

But if my father had not scanted me

22) J. Dover Wilson, *op. cit.*, p. 110.

And hedged me by his wit, to yield myself
 His wife who wins me by that means I told you,
 Yourself, renowned Prince, then stood as fair
 As any comer I have looked on yet
 For my, affection.

(II,i, 17-22)

Portia는 앞의 引用文에서와 같이 Moroco의 정중한求婚의 말에 순간적인 감동을 받았던것 같다. 비록 그녀가 “have the condition of a saint and the complexion of a devil.” (I, ii, 143-144)이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나 역시 이말은 그가 걸은 겹지만 속은 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Desdemona와 Othello의 결합을 聯想시켜주는 場面이기도 하다. 그러나 Moroco는 “Let all of his complexion choose me so”(II, vii, 79)라고 말하는 Portia의 경멸적인 語調속에 밀려난 또 한사람의 ‘stranger’이기도 하다.

That light we see is burning in my hall.
 How far that little candle throws his beams!
 So shines a good deed in a naughty world.

(V,i, 89-91)

여기서 우리는 어둠속의 작은 불빛처럼 비쳐오는 人間愛속에 “black”, “slave”라는 epithet로 대표되는 Othello와 “dog”, “devil”로 불리운 Shylock과 같이 험악한 세상 밖에 서성이는 悲劇의인 人物을 오히려 魅力的인 人間으로 表現하고 있는 Shakespeare의 폭넓은 세계를 막연하나마 깨닫게 된다. 오늘날 그가 살아 있다면 그는 이해와 용서를 포함하는 자비(mercy)속에 우리의 人種的인 偏見과 敵對感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可能性을 그의 藝術로서 暗示해 줄지 모른다.

Bibliography

1. Bradley, A.C.,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acmillan, 1960.
2. Bridges, Horace James, *Our Fellow Shakespeare*, Chicago: Pascal Covici, 1925.
3. Chute, Marchette, *Shakespeare of London*, New York: Dutton, 1949.
4. Clemen, Wolfgang H., *The Development of Shakespeare's Imagery*, London: Methuen, 1969.
5. _____, *Shakespeare's Dramatic Art: Collected Essays*, London-Methuen, 1972.
6. Eliot, T.S., *The Sacred Wood: Essays on Poetry and Criticism*, London: Methuen, 1964.
7. Fiedler, Leslie A., *The Stranger in Shakespeare*, London: Croom Helm, 1973.
8. Furness, Horace Howard, ed. *Othello*, A New Variorum Edition of Shakespeare, New York: Dover, 1963.

9. Harrison, G.B., ed. *The Complete Works of Shakespeare*, Harcourt, Brace, 1958.
10. Ludowyk, E.F.C., *Understanding Shakespeare*, Cambridge Univ. Press, 1964.
11. Morris, Ivor, *Shakespeare's God: The Role of Religion in the Tragedi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2.
12. Tillyard, E.M.W., *Shakespeare's History Plays*, Penguin Books, 1969.
13. Wilson, J. Dover, *Shakespeare's Happy Comedies*, Northwestern Univ. Press, 1963.

Shakespeare's Race-Prejudice: In *Othello* and *The Merchant of Venice*

Sam Ha Yun

Summary

This essay is to inquire out Shakespeare's opinions on the race-prejudice of his time. It is difficult, however, to interpret his definite opinions and a definite point of view. In the Introduction to *The Stranger in Shakespeare*, Leslie A. Fiedler said that at the heart of any work "there is always present a set of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man and, more particularly, about the limits of the human." He deals with the stranger in Shakespeare, concerned with the Jew, the black, the "savage man" and, most especially, the witch as they appear in the complex web of the whole Shakespearean corpus. His book was full of suggestions to my study of Shakespeare's race-prejudice.

Othello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to interpret, not only because of its equivocal tone but also because of anomalous structure, which, in fact, determines and explains that tone. Iago and other *Othello*'s enemies describe *Othello* as a "black ram", a "Barbary horse", "thick-lipped", etc. As Fiedler analyzes Shakespeare's vocabulary and the assumptions which underlie it, for Shakespeare "black" does not primarily describe an ethnic distinction, but a difference in hue and temperament, distinguishing from each other what he would be. In this context, "fair" has primarily a moral significance as the opposite not of "black", but of "foul", which means both "ugly" and "vile". Shakespeare does not here use that ethnic label "black" pejoratively. He dreams through *Desdemona* a symbolic marriage of all that Europe and Africa, civilization and barbarism, and courtesy and strength. Whether *Othello*'s color is black or brown, Shakespeare does not tell us about the racial prejudice, but about the human frailty such as jealousy.

The Merchant of Venice is a play about a Jew. The opening scene, dominated by the grave figure of Antonio, might easily be the first scene of a tragedy. It makes it certain that Shylock is at least as seriously conceived as Antonio. If Shylock, as Antonio and his friends cursed him, is a villain, an awful and appalling human being, who made him such? Shakespeare, who shared the prejudice of his age against Jews, would himself have ap-

plauded Antonio's action and might have even imitated it. But he never takes sides. Even though Shakespeare's reaction to Shylock as a Jew is likely to have been that of his time, he allows Shylock a sympathetic apology for himself: "Hath not a Jew eyes? Hath not a Jew hands, organs, dimensions, senses, affections, passions? . . ." Shakespeare's intention is to prove that Jews and Christians are both human beings. Today he would see in mercy, which embraces understanding and forgiveness, the only possible solution of our racial hatreds and enmities.